

## 포교전문가 양성 '시동'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지도사...' '불교상담...' 등 규정 마련

조계종 포교원이 각 분야의 포교 전문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1월 24일 제2차 포교원 회의의 열고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포교원은 이에 앞서 10일 제1차 회의에서 '불교상담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정'도 확정했다.

이 두 규정은 포교원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종단 포교 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 및 불교상담 지도자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교원장 해충 스님이 취임인바를 통해 '포교원을 시스템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한 후 나온 것이어서 포교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응시자격의 폭을 확대하며, 종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 지도사 응시자격은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뿐만 아니라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도법 제15조의 전문교육기관 졸업한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어린이 포교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항 주지가 추천한 자도 포함된다.

어린이 지도사는 사찰 및 어린이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어린이 포교 및 어린이 법회 지도를 해야 하며, 매년 말 포교원에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또 포교원 및 포교원 등록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포교와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격고시는 연 1회 시행되며 서류 전형, 필기전형(불교상식, 어린이 포교 일반, 기타), 면접 및 실기전형으로 이뤄진다. 이 규정 전에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 시행한 어린이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이하 개발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불교상담사 자격증 제도는, 종단 차원에서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불교상담사란 개인 또는 단체의 생활·심리적 어려움을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3월부터 2년 과정의 '불교상담대학'을 운영한다. 1990년 문을 연 '자비의 전화' 상담원 양성 교육기관이 4년 전 '불교상담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 1년 특수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불교상담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교상담사 1급, 불교상담사 1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계종 신도등록을 마쳐야 한다.

교과 과정은 교리와 역사 등 불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과 상담 전문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교육장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진행된다. 자비의전화 상담원이나 포교사, 종무원, 종단 스님 등에게는 등록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포교부장 동범 스님은 "어린이 지도사와 불교상담사 외에 선 포교사, 선심리상담사, 청소년 지도사에 관한 규정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1억원을 어린이 포교 지도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여수령 기자



### 교권수호 한 뜻으로...

불교교권수호협의회(상임대표 정각)가 주최한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회'가 1월 23일 부산 KBS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경남 500여 사찰에서 650여 명이 넘는 스님과 7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관련기사 4면** 부산·천미희 기자

## 국제 교류 교구본사 8곳

조계종 사찰·단체 교류현황 자료집 나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15곳, 불교계 단체는 11곳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발간한 '종단 국제교류 현황 주요 불교국가 불교현황 조사 자료집'에서 드러났다.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교구본사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동화사, 월정사, 대흥사, 법주사, 조계사였다. 24교구본사 중 33.3%인 8개 교구본사가 국제교류를 하는 셈이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사찰은 도

선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안국선원, 대원사, 표충사, 백련암 등 7곳이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진흥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파라미터청소년협회, 국제포교사회,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JTS, 지구촌승가회, 우리는선우, 병원불자연합,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1곳의 불교계 단체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등 주로 동서남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었다.

남동우 기자

## 사고

###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빛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량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마가 스님
- 장소: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100명(200명)
- 시간: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 회차 | 날짜     | 장소      |
|----|--------|---------|
| 1차 | 2월 10일 | 대치3문화센터 |
| 2차 | 2월 11일 | 대치3문화센터 |
| 3차 | 2월 24일 | 대치3문화센터 |
| 4차 | 2월 25일 | 대치3문화센터 |

<PR>



###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범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북장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긍정이라는 씨앗

용정은(www.buddhallust.org)

인물經世상鏡

“행여, 그를 만나거든/나, 왔다 갔다하고 견주게/못보고 그냥 갔다는 말도 함께/ 덕분에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고/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이 마음에 또 오게 되면, 오겠노라고...” (박찬의 시 '마실' 부분)

누구나 재미있는 것 많이 보고 맛난 것 많이 먹고 다녀가고 싶은 '마실'. 그러나 탐욕과 욕망 집착이 득실거리는 마실. 더많은 것을 보려하고 더 많이 먹겠다는 욕심이 얹어 되어 생명을 앗아간다. 살펴보라. 당신은 지금 탐욕과 스트레스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는가?

인연대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자사호 찻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 전국에 계신 중도 여러분과 신도제현 여러분께!

"시비가 있는 곳에 머리를 두지 말라(是非窟前莫回頭)"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간의 시비분별에 빠지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범어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범어사는 온갖 뉴스나 괴소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묵)이 있는 사람이 제 스스로 누우릴 때 까지 기다리자는 자비스러움(유)이었으나, 검증이나 확인, 보고 되지도 않은 보고서 등 각종 종단 내부 자료를 일방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온갖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불제자의 미덕인 묵인(默)만 고집하고 있을 수 없음을 전국 중도 여러분과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중도 여러분! 전국에 계신 불제자 여러분!

현 주지 대성스님이 부임한 이래 범어사는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문화유산의 전과뿐만 아니라 수행전통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자 '개신단체'를 '문 없는 문을 열다'라는 내용으로 개회하여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선찰대본산의 위상에 걸 맞는 '설선대법회' 및 '고승대법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불자들에게 주최할 수 없는 환희심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범어사를 문중의 일부 스님들과 종단의 일부 스님들께서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범어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이들 일부 스님들께서 제기하는 의혹을 밝혀 드립니다.

### ■ 세계신문회단은 조성계획에 관하여

범어사가 세계신문회단을 조성계획을 구상했던 것은 21세기 세계의 이목이 동양의 정신문화에 집중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① 한국교도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禪을 통한 세계인의 두뇌를 리드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범어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사업으로 판단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왔으나 이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우선적 해결사항이 많아 범어사에서는 현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우려하고 있는 토지매입차 지불된 계약금 15억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원료' 되어 있고(2005. 5. 20), 6만6천평에 대해서는 '처분금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2006. 5. 17. 부산지법 제14민사부)로 법적으로 보전장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이 토지를 범어사에서 매입하여 소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도시평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천년고찰 청정수행도량 범어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④ 그동안 끝 끝말 알았던 범어사가 토지를 사들여 사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은 배제하고 시비를 조장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 ■ 문도총회 복원결의 공고에 관하여

2007년 1월 17일 오후3시 부산 능심호텔에서 모인 '범어사 문도복원을 위한 문도회'는 문중의 최고 어른이신 조실스님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불법하지 못한 모임이고, 종현 중법을 상히 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지금은 폐기된 '범어사 운영규범'에 의해서 50여명의 문도가 모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종현 중법을 위배한 해종 행위입니다. 너무나 비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조항이 많아 지금은 폐기된 '범어사 운영규범'은 1,3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어사를 대중공의와는 무관하게 몇몇의 스님들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 19회(산중총회와 문도총회의 관계)

주지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는 문중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관제로 정리한다.

### ■ 20회(주지, 종무소 국장과 이 규범과의 관계)

① 주지나 종무소 국장이 종현, 종법과 기타 법률을 이유로 이 규범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 두 조항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조계종'이 아니라 '범어종'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엄연히 종단의 종현, 종법을 무시한 독자적이고 비민주적 위배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자 한다면 여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범어사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승인 없이 집행된 선암사부신진구(부암동) 토지 수용금 14,082,469,123원을 유출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삼보정재를 수호하고, 국고반환소송 등으로 실추된 범어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 범어사 주지스님과 집행부에게 만에 하나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사회법이나 언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는 마치 타종교 단체가 'AGAIN 1907 IN BUSAN' 행사에서 부산, 경남 일원에 '창궐'하는 불교와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대회를 갖는바와 진배없는 해종 행위이므로 종현,종법에 의하여 여법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